

# 사회적 지원, 일-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

고 광 만(연세대 박사과정) · 김 소 아(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)

## 연구목적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.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. ‘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’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, 일-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.

## 연구방법

본 연구는 2008년 신생아였던 아이들이 만2세가 되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(2010년) 자료를 기초로 하여, 후속출산에 대한 의도가 분명한 취업모 54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. 측정 변인 중 후속출산은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의 유무인 ‘후속출산의도’와 기존자녀 및 향후 계획한 자녀를 합한 개념인 ‘기대자녀수’ 모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. ‘모’가 지각한 결혼 만족도 · 부부갈등 · 부의 양육참여를 부부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, 사회적 및 공적인 지원으로 각각 사회적 지원과 일-가정 양립 정책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.

모든 변인은 질문지를 통한 어머니의 응답에 의해 이루어졌으며,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원, 일-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속출산의도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. 또한 본 연구는 변인 간의 경로 혹은 직 · 간접적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기존자녀수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.

## 연구결과

첫째, 연구모델의 모델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수정모델의 모델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사회적 지원, 일-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 그리고 후속출산계획과 기대자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원에서 부부특성을 거쳐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일-가족 양립 정책에서 부부특성을 거쳐 후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유의했다.

## 결론

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일-가족 양립 정책은 부부특성을 거쳐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. 이는 취업모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풍부하고 일-가족 양립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모가 인지하는 부부특성이 긍정적이며, 이것이 다시 후속출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.